

장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각의 기본형태 조형화 연구  
-본인작품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각전공  
최 경 호

# 조각의 기본형태 조형화 연구

-본인작품 중심으로-

장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각전공

최 경 호

# 인 준 서

최경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_____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 논문개요

추상미술은 어느 한 시대의 특정한 이즘(ism)이 아니라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온 미술의 한 발현적 형식이다. 인간주의의 르네상스 미술과 대립되어온 기하학적 추상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때로는 특정 지역과 특정시대의 경향으로 부상되어졌다.

선사시대에 나타난 기하학적 추상문양은 기술적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과는 다른, 상징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의식적인 것으로 크게 구분되어진다. 즉 최초의 추상적 양식은 상징적·주술적·장식적 목적을 띠고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20세기 과학의 발달은 새로운 기하학적 추상형태의 미적 감각을 대두 시켰다.

본인은 이와 같은 기하학적 추상을 도입한 조형세계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3장으로 이루어진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제작 동기와 연구방법, 목적을 설명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바탕이 되는 정신적 배경과 작품의 형태적 근거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본인의 작품분석은 도판을 통해 제작의도와 제작기법 등을 밝혔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개괄적으로 처리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과 작업방향을 모색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의 바탕.....	2
2. 형태적 근거.....	6
3. 작품의 분석.....	8
III. 결론.....	20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b>【작품1】</b>	스텐레스 스틸	5000×450×450mm.....	9
<b>【작품2】</b>	철, 도색	1200×1200×1200mm.....	11
<b>【작품3】</b>	스텐레스 스틸	2000×2000×2000mm.....	13
<b>【작품4】</b>	스텐레스 스틸	2400×1200×1200mm.....	15
<b>【작품5】</b>	철, 도색	4000×450×4000mm.....	17

## 서 론

기하학적 형태는 원시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어진 영원성을 가진 형태로 점, 선, 면을 이용해 간결한 형태로 만들어진 단순, 명쾌한 느낌과 시각적 효과를 유발하므로 현대 예술 전반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창조적 원천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원, 원뿔, 큐빅 등은 자연 질서 외에 수학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과 형태가 갖고 있는 질서에 의한 규칙성은 현대 사회의 도식화 되고 비정서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인은 기하학적 추상표현은 조형적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절제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추상형태의 기본인 원, 원뿔, 큐빅으로 전제하여 제작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하학적 추상표현과 이를 조형화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는 추상미술과 기하학적 표현을 정립하고 본인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의 의미를 작품의 형태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본인의 작품의도와 기법, 재료 등의 연구과정을 밝혀 본인의 작품세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 본 론

## 1. 작품의 바탕

흠<sup>1)</sup>의 ‘사색론’에 수록된 논문들은 보링거<sup>2)</sup>의 결정적 영향 아래 씌여진 것으로 비자연적 양식의 예술과 자연적 양식의 예술을 각각 기하학적 추상예술과 생명의 예술로 명명했다.

또한 흠은 “르네상스 이래 모든 예술은 단순한 생명예술의 시기였다. 그러나 나는 현대에 들어 르네상스적 태도가 붕괴되고 예술이 그 반대 방향으로

Hume, David, (1711.4.26~1776.8.25) 1711년 4월 26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출생하였다. 향사(鄕土)의 아들로 태어나 에든버러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한때 상사(商社)에 근무  
<sup>1)</sup>하였으나, 문학·철학을 지향하여 사직하고 1734~1737년 프랑스에 체재하였다. 그곳에서 주저(主著) 《인성론(人性論) A Treatise of Human Nature》을 집필하여, 1739년에 제1권 〈오성편(悟性篇)〉과 제2권 〈감정편〉을, 1740년에 제3권 〈도덕편〉을 출간하였다. 이어 당시의 사회·정치·경제에 관한 토픽을 다룬 《도덕·정치철학 Essays Moral and Political》(1741~1742)을 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편, 평판이 좋지 않던 《인성론》의 제1권 〈오성편〉을 개고(改稿)한 《인간 오성에 관한 철학논집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748)을 내놓았다. 그는 1744년 에든버러대학교, 1751년에 글래스고대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모두 무신론자라 의심하여 거절당하였다. 1752년 에든버러 변호사회 도서관 사서(司書), 1763년 주(駐)프랑스 대사의 비서관, 1767~1769년 국무차관을 역임한 후 은퇴하였다

Worringer, Wilhelm, (1881.1.31~1965.3.29) 본대학·외니히스베르크대학·할레대학 등의 교수로 있었고 은퇴 후에는 뮌헨에 거주하였다. 리글의 ‘예술의욕(藝術意慾)’ 사상을 계승, 기본적인 예술 유형에 입각한 양식사(樣式史)의 방법을 채택하여 미술사 연구를 추진하고, 고대<sup>2)</sup>집트나 중세 고딕양식의 미술에도 서구적·고전적 미술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미(美)와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추상충동(抽象衝動)에 대한 설명은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도 큰 의의를 가진다. 주요저서로는 《추상과 감정이입》(1908) 《고딕의 형식문제》(1911) 《현대예술의 형식문제》(1948) 등이 있다.

역전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적할 것은 르네상스 철학에 반동하여 내가 기하학적 예술이라고 부르는 태도가 수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그리하여“현대에 있어서 기하학적 예술의 재출현은 르네상스의 인간주의 태도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한다.<sup>3)</sup>

인간의 조형 활동에 있어서 기하학적인 형태란 매우 오래된 것이며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분석을 통해 도달한 대상의 재현 요소와 함께 수학적 질서를 지니고 있는 이성적인 형태를 상징하는 조형적 요소이다.

형(形)은 눈에 의해 포착된 대상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며,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가리킨다. 즉 형은 어떤 형태의 윤곽이라고 할 수 있고 대상을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 닿는 자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기하학적 형태는 우리에게 시각을 자극하고 반응하게 하는 간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변형하고 종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하버트 리드는 현대 미술에서 기계적 또는 기하학적 감성이 특별한 호소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유는 역사에서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모든 기하학이 미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4)</sup> 기하학적 형태는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전달이 빠른 조형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함이 동반하는 기하학적 기본형에 형체상의 변용을 가하면 그 느낌은 급속히 변해 간다.

오세영, 문학 그 이해, 국학자료원, 서울, 2003, p.189

4) Herbert Read, 현대미술의 원리, 김운수 역, 서울, 열화당, 1975, p.82.

3)

루돌프 아른하임은 ‘기하학적 형태는 인간의 이념적 사고 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자연의 은유적 형태 혹은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자와 컴퍼스로 그려질 수 있는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의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창조적 형태이다. 이러한 개념의 기하학적 형태는 복잡한 자연으로부터 간결한 형태로 이루어 낸 인공적인 추상의 형태라 할 수 있다.’<sup>5)</sup>라고 언급하였고, 로버트 모리스는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기하학적 형태가 하나의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강제성이 없는 오브제의 피동성과 그 유연성이 쓸모 있는 작품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sup>

또한 일체의 장식성을 제거하고 가장 단순한 요소로 환원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 명쾌한 느낌을 주며 그 간결함 속에서 함축된 의미를 발견 할 수도 있다. 그 함축된 의미는 객관적인 형태 속에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에너지 등을 표출한다.

인간의 조형 욕구에서 기하학적 형태의 도입은 기하학적 조형이 갖는 독자적 특성으로 인해 예술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의 무질서한 혼돈 상태를 엄격한 균형으로 조화시켜 주며, 모든 표현수단을 어떤 특수성으로부터 보편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본인은 기하학적 형태가 객관화될 수 있는 형태로서 재현이 가능하며 극도로 단순화되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적 전달이 가장 빠른 조형언어로 생

5) Rudolf arnheim , 미술과 시지각 , 김춘일 역 , 서울, 미진사 , 2000 , p.125.

6) Edward Lucie smith , 현대미술의 흐름 , 김춘일 역 , 서울 . 미진선서 , 1989 , P.150.

각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창조적 의지와 개성적인 표현양식의 수단으로서 형태를 새롭게 창출하는데 있어 매우 편리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 2. 형태적 근거

기하학적 형태의 기본형은 원, 삼각형, 사각형 이 세 가지이다. 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상징형식으로 인간의식의 초기상태인 원시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원과 양극의 합일, 완전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어왔다. 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므로 영원과 전체의 사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대칭의 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하며 곡선의 부드러움과 단순성을 보여준다.

삼각형은 한 직선의 양쪽 끝 사이에 수직인 직선 위의 한 점을 취한 기하학적 기본 형태로서 가장 적은 면을 가지고 닫힌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삼각형은 원, 사각형과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정신적·종교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어 오고 있다.

삼각형은 정방형이 갖는 정적 균형을 깨뜨리는 조건을 갖는데, 정방형의 정적 질서는 붕괴되어버리고 시각적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삼각형은 사선의 이미지가 강하다. 칸딘스키는 사선을 “직선적 이면서도, 자유롭고 비 중심적 선으로 차가움을 가진 능동적으로 수직선 사이에서 균등한 일체감을 보여주는 선”<sup>7)</sup>이라고 하였다.

사각형은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공간개념의 극한으로서 조형의 집약임과 동시에 충실한 정신의 상징적인 질서를 나타낸다.<sup>8)</sup> 이러한 상징적 의미

7)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 역, 서울, 열화당, p.30.

8) 이진호, 정방론, 우성출판사, p6

와 함께 사각형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나 신관의 주춧돌, 기타 경기장등과 같은 고대 도시건축의 비례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사각형은 집합, 회전 및 균정(均整)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적 조형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하여 새롭고도 구축적인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동적인 형태들을 표현해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본인의 작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고 이질감 없이 생활 속에서 동화를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 3. 작품 분석

모든 자연의 세계를 원추형 원통형 구형으로 본 피카소, 브라크에 의해 시작된 입체파는 자신에 관점에 존재의식을 입체의 기본 형태로 표현한 세잔의 조형사상과 흑인조각이 원시적 조형감에서 강한 영향력을 받았으며 시각에 의한 사물의 기하학적 형태성을 더욱 도식화 시켜 기하학적인 단순한 도형의 연결로 처리해 나감으로써 기하학적 사고에 의한 화면구성을 이루었다. 피카소와 브라크 등으로 대표되는 입체파는 세잔의 조형공간에서 보여지는 기하학적이며, 구조적인 요소를 기초로 하여 출발을 보게 되는 입체주의는 브랑쿠지가 로댕으로부터 탈피하여 현대적 조형을 추구함에 있어 로댕의 대상에 대한 형상적이고 표현적인 취급에 대해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지님으로써 입체주의가 기초한 세잔의 관점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태도의 반영으로 그의 조각은 소수의 기본형으로 환원된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기하학은 일정한 법칙에 근거해서 구성되므로 강한 질서를 갖는 시각적 전달이 빠른 조형표현으로 형태가 지닌 단순성과 합리성은 형태를 창조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재현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기하학적 형태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과 정신적이고 감상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 형태로 자신이 속한 공간과 두뇌를 빠르고 질서 있게 발달시키고자 하는 현대인의 생활감각에 맞는 조형감각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도시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개성이 없어져서 장소성이 결여되고 그 속의 개인이 삶은 물 개성화 되고 있다.

본 작품은 도시 환경에 개성과 장소 인식적 공간을 창조하고 개인의 개성이 살아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미적 공간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한 직선과 단순한 색들로 변화 없는 환경에 반짝임이나, 강한 색, 커다란 형태로 일상적인 각 개인에게 도시 환경에 대한 느낌, 또는 장소에 대한 재인식을 줌으로서 도시공간이 좀더 친밀한 공간으로 각 개인에게 다가가 도시 공간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형성하고자 하였다.

미술작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찾아가 즐기는 미술관이나 화랑의 작품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서에 개입 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중을 자연스럽게 참여 시키면서 작품과 소통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상의 삶과 주변의 환경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작품1】

재 료 : 스텐레스 스틸

크 기 : 5000×450×450mm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스텐레스 파이프에 뚜껑을 용접하고 핸드 그라이더로  
마감 한 후, 포터블 그라인더로 스텐레스 표면을 밀러  
처리하였다.

단순한 스텐레스 기둥에 밀러처리를 하여 숨여 놓으므로 주변의 빛, 색, 형태를 흡수하고 반사함으로 공간에 무한히 확장 대고 진출해 보이는 것을 의도하고, 원기둥은 시작과 끝이 없는 합리적이기 보다 분단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고 운동이 멈춘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 【작품2】

재 료 : 철, 도색

크 기 : 1200×1200×1200mm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철판을 프레스로 절단하여, 용접하고 핸드 그라인더로 표면을 정리, 그 위에 철 부식 방지 페인트로 3번 도색 마감했다.

네개의 직선이 모여서 면이 형성되고, 두개의 직선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면이 형성된다. 이러한 형태는 모두 수평선과 수직선의 구성이므로 명쾌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 【작품3】

재 료 : 스텐레스 스틸

크 기 : 2000×2000×2000mm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스텐레스 스틸 판을 프레스로 가공, 용접하여 핸드

그라인더로 용접부위 마감, 포터블 그라인더로 표면을 마감하였다.

구는 모든 대칭적인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고 시각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형태이다. 형태적으로 부드러움을 주지만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지나친 반사됨을 줄여서 주변공간을 풍부하고 원만한 공간으로 표현하려했다.



#### 【작품4】

재 료 : 스텐레스 스틸

크 기 : 2400×1200×1200mm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스텐레스 스틸 판을 판벤딩으로 가공, 용접하고 바닥  
부분은 판을 대고 용접 후, 프라즈마로 절단, 핸드  
그라인더로 용접부위 마감 후, 포터블 그라인더로  
표면을 밀러 처리하였다.

삼각형은 정방향이 갖는 정적 균형을 깨트리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경사  
지거나 직립할 때는 시각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유발한다. 이는 인간이 지니  
고 있는 위기에 대한 흥미와 쾌감과도 통한다.

주변의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 변화 있는 공간감과 활달한 느낌을 표현하였  
다.



【작품5】 철, 도색 4000×450×4000mm

## 【작품5】

재 료 : 철, 도색

크 기 : 4000×450×4000mm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철 사각 파이프를 벤딩하여 뼈대를 제작 후, 그 위에  
철판을 제단하여 용접, 핸드 그라인더로 용접부위 마감  
후, 철 부식 방지 페인트를 3번 도색 하였다.

링 모양의 형태는 기하학적이고 완전하지만 무엇이든 변화를 바라는 역동감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대칭의 원은 그자체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전함, 곡선의 부드러움과 단순함을 보여준다.

## 결 론

예술을 향한 표현 욕구는 그 시대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작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작품에 반영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20세기의 산업화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인간은 '본질'을 상실하고, 기계문명이 초래한 부작용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철저히 익명적으로 변하며 스스로 고립되어간다.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 인간은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木質)을 상실한 '익명'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서 예술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것의 사회적 반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술은 현실의 모방이 아닌 재창조이며,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삶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부여한다.

기하학(幾何學)은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한 분야로서 오래 전 부터 발전해 왔다. 인간의 이념적 사고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기하학(幾何學)의 단순한 형태는 시각적으로 쉽게 다가오며 그 간결함 속에 함축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음으로 해서 예술 작품에 도입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세잔느와 브라쿠시의 조형사상을 토대로 조형화하고 추상미술의 기본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작품을 정리하고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이건호 , 정방론 , 우성출판사 , 1991

---

오세영 , 문학 그 이해 , 국학자료원, 서울, 2003

---

한석우 , 입체조형 , 미진사 , 1996

---

Edward Lucie smith , 현대미술의 흐름 , 김춘일 역 , 서울 . 미진선서 , 1989

---

Herbert Read , 현대미술의 원리 , 김윤수 역 , 서울 , 열화당 , 1975

---

Rudolf arnheim , 미술과 지각 , 김춘일 역 , 서울, 미진사 , 2000

---

Wassily Kandinsky , 점.선.면 , 차봉희 역 , 서울 , 열화당 , 2000

예술에서 정신적인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서울,2000

---

동아 원색세계 백과사전 , 제6권, 1982

---

# ABSTRACT

The abstract beauty alcoholic beverage specific of which about time was cum (ism) it knows and the mankind old history to lead it is continued and it is a grudge revelation type of all fine arts. The naturalism fine arts and it was opposed and all abstraction tendency surpassed the area and a time and sometimes it came to rise to the surface with the specific area and the tendency of specific time.

The geometric abstraction which appears in presentation time from symbol objective and to be a lot divided with the position conscious thing with the fact that from the German silver technical cognitive process which bites it originates with the natural enemy it is different, it makes it comes.

The namely initial abstraction form symbol. incantation. wearing a decorate objective and appearing is a possibility of doing, to today development, information reconciliation promotion and magnification of demand and the advanced technology of mass production it leads and becomes diffusion anger with the sustained conflict body a composite art from the international anger time inside which and it aims it is diversified. It raised its head the American sense of the geometric abstraction form where the advancement of 20 century sciences is new specially.

Person oneself with this described the moulding world which introduces a same geometric abstraction to sleep and it did. The composition of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falls by any means with 3 chapters.

It explained a production motive and a research method and an objective from my I chapter introduction.

Against the form ground of the spirit background where becomes the character of the work and the work it described from my II chapter main subject, the work analysis of person oneself led and the illustration it revealed a production intention and the making machine law back.

A in the future new possibility and a work direction it controlled the contents and the work of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summary from my III chapter conclusion and it groped.